

소리로 기억하는 '대중음악 발생지 부평'
과 그 시대 여성의 생활사



부평을 기록하고 그 당시 여성을 만나며

‘인천여성가족재단’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했다. 아키비스트 활동을 하는 단계에서 늘 들어왔던 부평은 ‘대중음악의 발생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면서 신촌(부평3동)이라는 새로운 동네가 형성되었다. 당시 ASCOM 영내외 주변 클럽을 통해 서양 음악이 유통되고 음악인, 연주인, 작곡가 등이 모여들면서 음악 활동이 번성했다.”라는 이야기에 이번 활동을 통해 깊이 접근해 보고 싶었다.

조사 과정에서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향락가였던 다다구미 골목, 고철이나 철재 스크랩을 수집 가공하여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 ASCOM을 통해 들어온 로큰롤 음악에 열광하는 한국 젊은이, (현)동수역 3번 출구가 있는 ASCOM 정문 앞에 연주자들을 서울 미군클럽까지 픽업하던 장소. 예전에 삼릉(현 동수)을 JV(Japan Village)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당시 기지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환경과 애환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많은 자료를 찾고 연관된 다양한 인물을 만나는 시작인 것 같다. 교육과정에서는 아카이빙 소재만 찾으면 다 될 것 같았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 방대한 아카이빙 정보를 시대별로 정리하거나 내용을 함축하는 일도 어려웠다. 구술자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술자의 의도대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되었다.

신생아처럼 시작한 아카이빙 작업이었지만, 다음에는 지금과 다른 설렘으로 기록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2022년 10월 25일
시민 아키비스트 변인화

인터뷰

“1973년 6월 이전까지 인천 부평 일대는 미군과 군무원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부평3동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신촌’(新村)으로 불렸다. 그들 중에는 가수의 꿈을 키우며 미8군 클럽에서 오디션을 보는 것을 목표로 상경한 이들도 많았다.”고 구술자는 당시를 기억했다.

기억은 당시를 잊거나 왜곡된 기억을 할 수 있다. 늦었지만, 기억이 편집되기 전, 대중음악의 발생지 ‘부평’과 당시 여성들의 삶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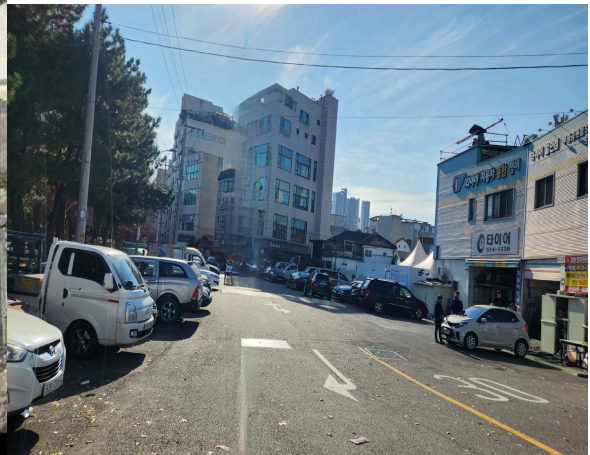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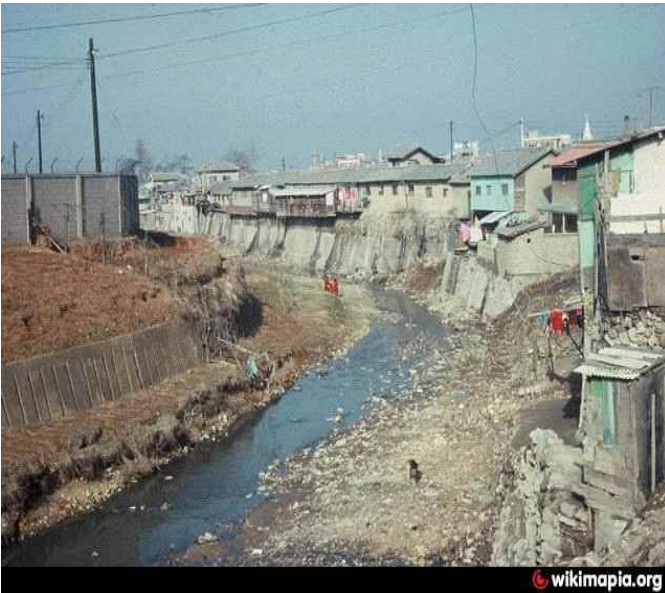
(사)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의회 정유천 대표이사

밴드 음악의 성지 ‘부평’

예술인이 들려주는 부평 ASCOM, 그때는...

“당시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의 보급을 위해 실제 소요량의 7배를 보냈다고 한다. 의식주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모든 문화적 욕구까지 해결해야 했던 곳으로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재화가 쏟아져 부어진 곳이 바로 이 부평이었다.

미군보급창이 들어서자 부평이 비교적 풍요로운 곳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일 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당시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미군부대와 무관하게 생업을 꾸리는 사람은 없었다. 일본이 패망과 함께 철수하면서 다다구미 회사가 터를 다져놓은 주변 공터에 수백 채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섰고, 이곳은 (현 부평3동) ‘신촌’이라 불렸다. 이곳은 유흥가가 되어 미군을 상대로 하는 향락가 뿐 아니라 현재의 이태원을 상상하게 하는 양키(미제품)상품, 레스토랑(미국식 식당), 클럽 등 상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1960~1970년대 복개 전 굴포천 풍경, 자료 출처: Wikimapia) (위치:현재 부평공원 복개 주차장, 사진촬영22.11.17. 변인화)

주한미해병대 지원사령부(ASCOM) 도시‘부평

부평은 한국 전쟁 후 미 군수지원사령부(ASCOM: United States Army Support Command)가 위치한 도시가 되었다. 애스컴시티는 1973년 6월 30일자로 공식적 기능을 마치고 해체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지가 캠프마켓(Camp Market)이다.

ASCOM은 인천항을 통하여 들어온 물자를 주한 미군부대에 재보급하고 북한군과의 전투로 파괴된 부평을 재건한다. ASCOM은 부평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둔지역을 넓혔다. Camp Market, Camp Grant, Camp Tyler, Camp Hayes 등으로 구성된 ASCOM에는 비행장뿐만 아니라 운송대 수중중대, 주한미군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걸쳐 가야 하는 보충대도 있었다. 특히 121부대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병원부대였다.



사진 - 1948년 11월. 부평 ASCOM 풍경



US Army Ascom City in the Bupyeong Incheon Korea. jpg

▲ ASCOM은 1970년대 초까지 주한 미군 및 한국군의 물품조달을 맡으며 후방기지로 활용되었던 미군보급부대였다. (자료출처 : 슈트름게슈쯔 블로그)

부평 캠프마켓 주변의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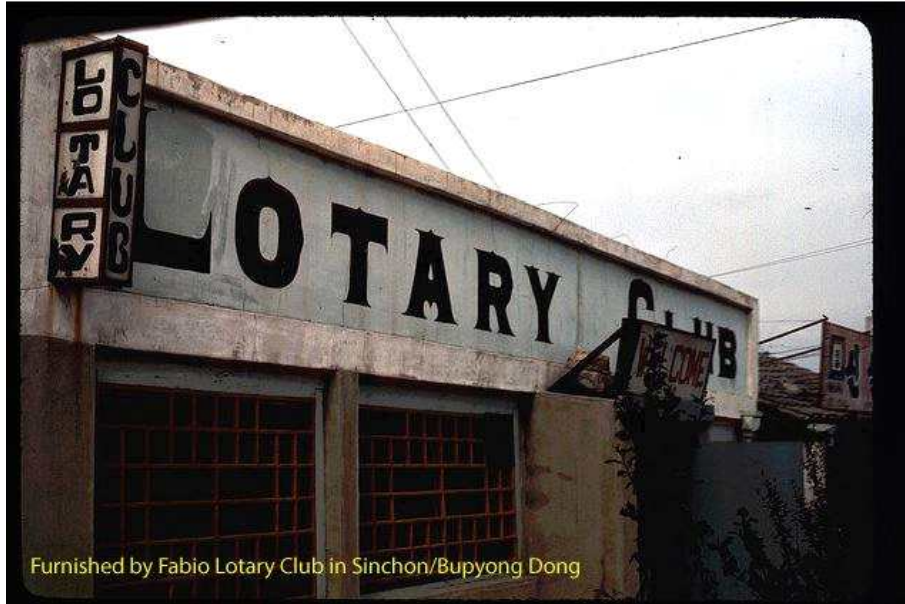
50~70년대 당시엔 그린도우, 화이트 로즈, 드림보트, 유니버셜 등 악단이 연주하는 다운타운 클럽이 20여 개 이상 신촌(부평3동)과 삼릉(부평2동)에 있었다. 그 수는 용산보다 많았다고 한다. 그 중 컨트리 음악을 연주했던 세븐 클럽은 미군 장병들이 좋아했던 뮤지션으로 유명하다.

ASCOM 영내에도 8075클럽, 121클럽, 44클럽, 76클럽, 728클럽 등 미8군 클럽들이 있었고, 이 클럽은 EM클럽 NCO클럽으로 분류 되었으며 이곳에 연주하려면 미8군에서 주관하는 오디션을 거쳐 클래스를 받아야 했다. 연주할 클럽이 많았던 부평으로 많은 연주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당시 삼릉은 연주인들이 모여 사는 독특한 형태의 동네가 형성된다.

(1960년대 신촌(현 부평3동) 주변 클럽 자료출처:<https://blog.naver.com/kkkk8155/140178607955>)



신촌(현 부평3동) 모습(22. 11. 17. 촬영.변인화)



(신촌(현 부평3동)로타리클럽)

부평 캠프마켓 주변의 기지촌

일제강점기 조병창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주한 미군기지 주변 애스컴 시티로 한국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계를 유지했다.

이 중엔 미군을 상대로 성(性)을 파는 '기지촌 여성'도 상당히 많았다. 국가가 개입하기 전까지 기지촌은 번창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혼혈아가 태어났다. 한국 전쟁 후 혼혈인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 등으로 입양됐다. 이들은 미국에서 '아메라시안(Amerasian)'으로 불렸다. 미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의 혼혈아를 뜻한다.

이들은 어머니가 한국인이었음에도 '혈통'에 의해, 국가의 방조 아래 해외로 입양됐다. 한국은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반공'과 함께 '혈통'으로 국민을 확정했다. 부(父)계 혈통 중심이었다. 자신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사회적 낙인과 인종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혼혈아에 대한 흑독한 사회적 환경 탓에 한국 땅에서 혼혈아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었다. 인천 부평 외에도 전후방

기지 지역에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애스컴 시티는 1970년 초반까지 용산 미군기지보다 그 규모가 컸다. 애스컴 시티가 소재한 부평을 비롯해 미8군이 있는 용산, 동두천, 대구, 군산, 부산 초량 등 전국 62개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은 대략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부평에 많을 때는 1000여 명의 기지촌 여성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위안 속에 적합한 가정에 입양됐다. 전후의 참상에서 태어난 이들을 돌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입양 기관과 원조 기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전후 60년에 걸쳐 한국 아동 약 20만 명이 해외로 입양됐는데, 그중 4만 명 정도가 혼혈아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피임방법이 흔하지 않아, 기지촌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 중에 신촌(현 부평3동) 인근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버려져 죽은 아이도 꽤 있었다고 한다. 인종차별을 금지하자는 문화확산과 더불어 성평등과 인권을 중요하시게 하는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없다.





60년대 초 우리나라 최초의 기지촌으로 한때 70~80여 개의 클럽이 성업했던 신촌(현 부평3동)



드림보트클럽 화장실 문에는 '성병을 예방하는 최선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 여성과 나가기 전 매니저에게 문의하십시오'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출처/handupressfocus

드림보트 사진 교체함- 성병예방을 위한 안내문구가 있는 드림보트 화장실)

기지촌여성들과 남성들 그리고 애스컴 시티에 복무하던 주한 미군 병사 Wayne Algood이 촬영한 사진

60년대 캠프마켓 주변 생활사

60년대 캠프마켓 주변 여성들의 삶과 생활사를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이다. 당시는 카메라가 흔치 않았던 시절로 미군 부대 복무하던 병사 누군가가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된다. 사진 속 여인들의 복장과 주변 풍경으로 당시 여성들의 고단한 삶과 생활사를 짐작하게

한다.



K-POP의 뿌리 ‘부평’

현재 동수역 3번 출구가 있는 ASCOM 정문 앞. 당시 그곳에 있던 삼릉당구장을 기억하는 음악인들이 많다. 그곳이 미군클럽에서 연주하는 악사들이 집합하는 장소였다.

“그 길을 따라 하숙집들이 죽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 7~8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밴드들이 무리지어 하숙을 했지요. 그 곳은 대부분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 마당에 모여서 연습을 해도 시끄럽다는 불평을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ASCOM 내의 하우스 밴드가 되려면 미군들이 하는 오디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때 열심히 했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K-POP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당시 무대에서 공연했던 선배 가수들로 윤항기, 조용필, 날개를 부른 허영란, 박한란 씨들을 기억했다.

당시 미8군의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는 일이라 정말 열심히 연

습했다는 김청산 씨는 문화 선진국인 타국에 비해 예술인의 생명이 짧은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예산 없는 예술인복지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68년도에 ASCOM에서 공연했던 ‘사랑과 평화’의 보컬 이철호 씨는 “한국 락 기타의 귀신”이라는 별명을 들던 인천 출신의 김홍탁이 리더로 활동하던 ‘키보이스’ 역시 특A급 밴드 중의 하나로 꼽았다.

현재 부평에 살며 8집 음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과 평화’의 보컬 이철호 씨는 음악인들 중에 부평 사람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예전에는 삼릉을 JV(Japan Village)라고 불렀어요. 그곳에서 문학, 군포 미사일 부대 등을 포함해 보통은 하루에 16개 악단이 출발했지요. 악기와 연주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리무진 같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당시 삼릉에 있던 삼부약국 앞에서부터 길을 따라 수송 차량을 타려고 늘어선 모습은 장관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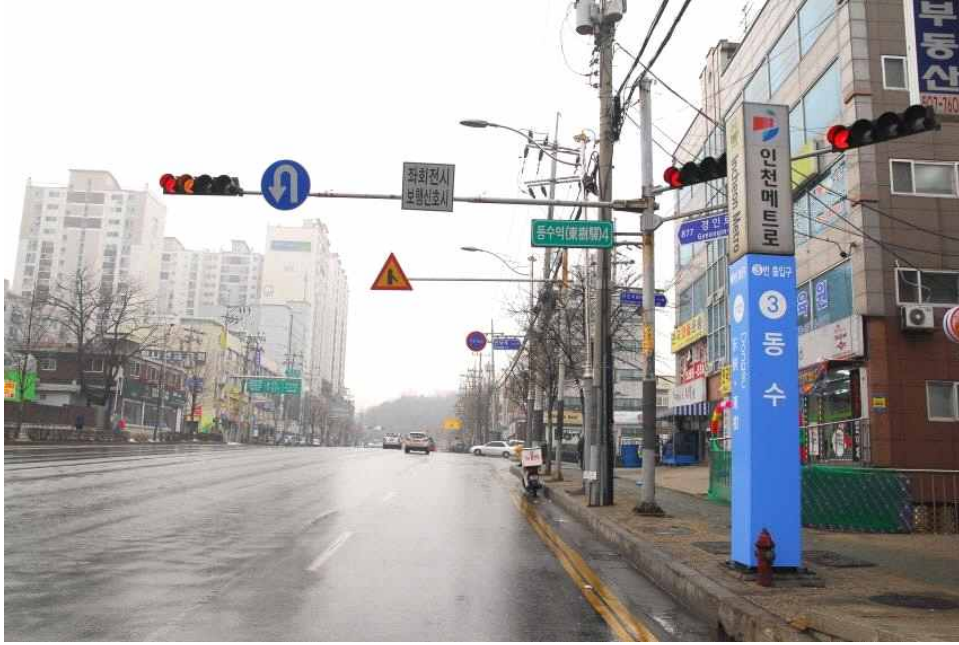
연주자들은 삼릉당구장에 악기를 맡기기도 하고 연습하다 쉴 때면 당구를 치거나 옆에 있던 탁구대에서 탁구를 치기도 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당시에는 분기별로 공개오디션을 거쳐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미군 부대의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오디션에서 부여받은 레벨은 음악인의 가치이며 거기에 근거해 실력자들은 충분한 보수를 보장받았지요.”

당시 부평의 ASCOM 앞에서 화이트로즈라는 클럽을 운영하기도 했던 차영수 씨는 그린도우, 화이트 로즈, 드림보트, 유니버설 등 악단이 연주하는 다운타운 클럽이 용산보다 많았고 그 중 컨트리 곡을 연주했던 세븐 클럽은 미군 장병들이 유난히 좋아했었다고 기억했다.

미군클럽에서 연주하는 악사들을 픽업하던 장소 삼릉(현 동수역 3번 출구)

(자료, 사진제공: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 이장열)



부평 대중음악 돌레길을 거닐다.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의 뿌리이자 중심지였고, 대중음악이 부평 지역의 특성화된 콘텐츠라는 것을 발견해 2018년 세계 최초, 한국 최초의 부평 ‘대중음악돌레길’을 조성했다.

“부평대중음악돌레길 전국화, 대중화를 위해서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공모사업에 지원했다.”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이자 중심지였던 부평에 대중음악돌레길에 부평지역의 특성 콘텐츠인 밴드 공연을 통해서 부평대중음악돌레길의 문화가치를 부평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콘셉트로 진행한다.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의 ‘한국 밴드 꿈, 부평대중음악돌레길 거닐다’ 사업 내용에는 부평대중음악돌레길 1,2,3코스에 한반도 최대 규모 미군기지 ASCOMCITY (Army Service Command)에 속했던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 옛 미군클럽이 존재했던 부평 신촌, 미8군 음악 오디션을 통과한 한국 청년 뮤지션 300여명이 집단 거주하면서 창작 활동한 한 부평 삼릉 일원에서 매달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부평대중음악돌레길 답사와

정기 밴드공연을 펼쳤다.(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 이장열)



‘신촌’그때를 노래하다.

60~70년대 부평 신촌(현 부평3동) 기지촌 여성을 노래한 (사)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의회 정유천 대표이사는 그때를 회상하며“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담은‘신촌’을 작사,작곡했다.

‘신촌’

노란 개나리꽃 미군부대 담장 가에
활짝 핀 봄이 오면 하얀얼굴 빨간 입술 여인들
신촌교 다리 위에 작은 리어카 멍게 장수
살짝 편 옷핀으로 처음 먹어본 멍게 한 점

모두 어디로 갔을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꿈 찾아 갔을까? 사랑 따라 갔을까?
모두 어디로 갔을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꿈찾아 갔을까? 사랑 따라 갔을까?
행복 했으면 좋겠네. 잘 살았으면 좋겠네.

(정유천 작사,작곡. 보컬 정유천블루스밴드)



역사 속으로 사라진 'DREAM BOAT'

질문 : “DREAM BOAT 위치는 지금 어디쯤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정유천 대표이사 : “자세히 보면 당시 클럽 DREAM BOAT가 부일옥 위치였음을 옥탑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바닥재나 계단, 화장실은 당시의 건축상태 그대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작년에 재건축을 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죠.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클럽이었는데... 드림보트에서 대중음악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의미가 특별한 장소죠.”

질문 : “당시 주변의 클럽을 직접 보신 건가요? 누가 들려주신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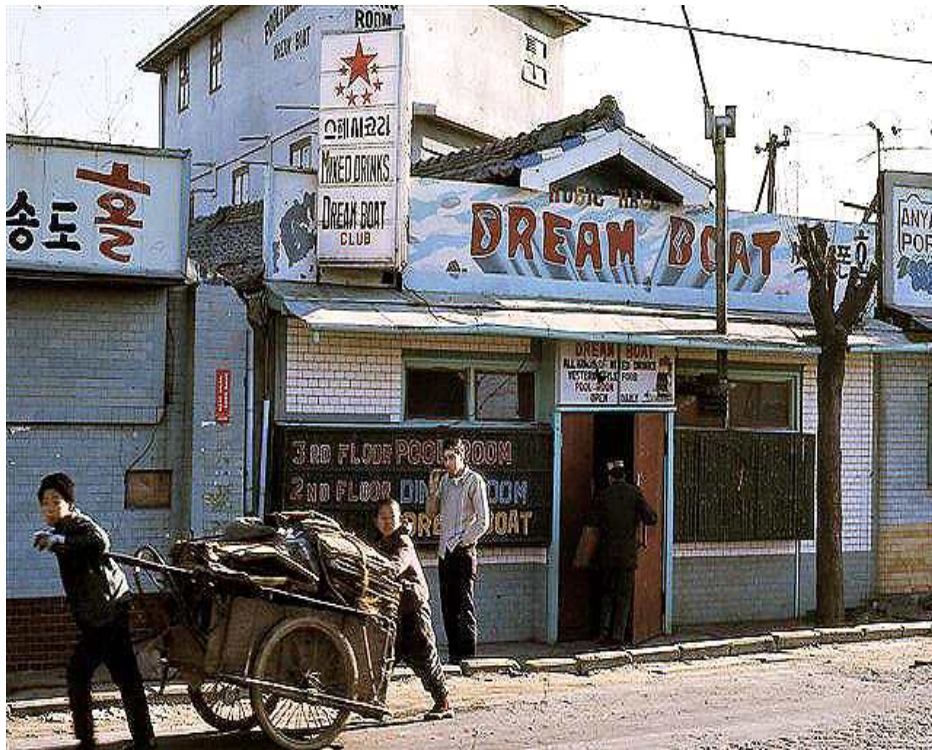
정유천 대표이사 : “60~70년대 애스컴 주변의 클럽을 직접 봤죠.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나닐 때니까. 아버지가 애스컴 빵공장을 다니셨고, 그때는 주급으로 줬는데 즈급봉투도 아직 있어요.”

질문 : “당시의 클럽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사라져서 안타까우셨겠어요.”

정유천 대표이사 : “사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부일식당 사장님이 오랜동안을 유지해 주셨고, 공간도 허용해 주셔서 대중음악 강의도 할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죠”.

질문 : “부평이 대중음악의 발생지라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얘기인가요?”

정유천 대표이사 : “캠프마켓 영·내외 클럽을 통해 뮤지션 활동은 물론 지금의 동수역 위치에서 당시 용산 미8군까지 음악인들을 픽업하는 차량이 있었으니까 삼릉(부평2동)에 많은 음악인들이 거주하고 활동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1970년대 초 신촌(현 부평3동)클럽 드림보트



옛 드림보트가 있던 자리

2020년 5월 철거된 드림보트 건물(부일정육식당 2층) 김명식. 사진제공(사진교체함)



1970년대 초 클럽 드림보트 계단과 드림보트 클럽 바닥재

60~70년대 당시 애스컴시티 주변 주택가가 초가집과 드물게 기와지붕의 단층 건물이었던 건축이었던 당시 드림보트 클럽은 대리석 바닥재와 양변기를 설치한 견고한 자재의 2층 건물이었다. 하지만 2021년까지 운영했던 '부일정육식당'이 신축하면서 드림보트 클럽의 흔적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음악도시 부평의 현재 그리고 내일

1996년 블루스파크를 시작으로 락캠프, 루비살롱, G7, DOM 등 인디밴드가 공연하는 라이브클럽이 인천에서 부평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 현재 부평에서 활동 중인 밴드로는 KBS 드라마 '추노'의 OST를 부른 글루미썬티스를 비롯해서 GUTZ, 씨드스톤, 하일라이츠, 락타이거즈, 덤덤라디오, 카멜라이즈, NARANG, 블루니어마더, 1984, 예술빙자사기단, 꼬리물기, 컨티뉴9, 빌리지브라더스, 해머링 등 다수의 밴드가 활동 중이다.

부평을 음악도시로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각 지역의 문화축제나 문화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요즘 문화축제나 문화시설은 지역적 특성이 배제된 다른 지역의 축제를 모방하거나, 실적 위주의 관 주도적인 형태로 보급되어 천편 일률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변별력 없는 지역 축제야말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문화라는 콘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역민들에게 식상한 인상을 주어 축제 문화를 외면할 소지가 있다. 그동안이 지역 축제는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분명 지역문화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 축제가 나아가 할 방향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음악도시 부평을 위하여

부평의 근현대사를 통해 다른 지역과 변별되는 부평 고유의 문화 인프라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부평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른 지역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문화 인프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부평. 더 늦기 전에 이 지역 원로 음악인들을 찾아 부평의 현대사를 정리해야 한다. 인터뷰를 위해 그 세대를 기억하는 원로 음악인들을 찾다 보니 벌써 세상을 떠신 분들이 많았다.

ASCOM 내에 있던 기지 캠프마켓도 이전을 했다. 100여 년의 근대적인 역사를 고스

란히 간직하고 있는 ASCOM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화적 자산이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근대적 군사도시로서 고유한 모습을 활용하여 어느 곳에도 없는 대중음악 박물관, 전근대 군사 박물관 등으로 활용한다면 문화도시 부평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음악도시 부평의 미래

어둠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세계적 명승지로 전환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제는 역사가 흘러온 자취를 바로 보고 후대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일이 이 역사의 흐름에 동승한 우리들의 책임이 되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보급했던 부평의 역사적 지리적 의의를 되살리자.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 K-POP의 뿌리가 되었던 곳!

불과 50년 전까지 공연을 위해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던 부평.

음악도시 부평 만들기는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일과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이 우리들의 과제이다. 1950~60년대, 애스컴 영 내외 50여 곳이 있었다. 부평 삼릉에 한국인 뮤지션 300여 명이 거주했었던 부평. 미군이 철수한 캠프마켓에서 미국 센트럴파크와 영국 하이드파크같은 휴식과 음악이 있는 공연 개최로 하나가 되어 보자.

자료명 : 소리로 기억하는 '대중음악 발생지 부평'과 그 시대 여성의 생활사

자료생산일: 2022.10.31

발행자: 변인화

도움을 주신 분: (사)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의회 정유천 대표이사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이장열 대표